

# 만사대평

2018년  
1월호

## 근하신년

마을신문 만사대평 팀과 대평동 마을회, 영도구, 영도문화원  
깜깜이예술마을 사업단,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일원은  
대평동 주민 분들의 건강과 사업장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 대평동 마을회

## 경로당 어르신께 음식 대접하며 따뜻한 새해 기원

대평동 마을회에서 지난 12월 28일 목요일 대평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송년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63년의 역사를 지닌 대평동 마을회에서는 과거 경로잔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야유회를 위한 찬조금을 지원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평동 마을회 일원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 2017 마을미디어축제 - 마을미디어 사례발표회

## 깜깜이예술마을신문 <만사대평> 우수상 수상



지난 12월 22일 금요일 열린 2017 마을미디어축제 - 마을미디어 사례발표회에서 깜깜이예술마을 만사대평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류심사에 통과한 총 6개 팀이 사례 발표를 하였는데 만사대평의 발표는 김동진(한성세탁소 사장, 18통 통장, 마을해설사) 주민기자가 맡았습니다. “대평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이라는 본인만의 수식어를 늘 붙이며 마을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표정과 친근한 말투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사대평의 오늘을 있게 해준 이춘옥, 이종렬 주민기자와 이은미 신입기자도 자리에 함께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상금은 추후 마을신문 발간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례발표회 참가는 만사대평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NN과 국제신문이 만사대평 김동진 주민기자와 인터뷰를 했으며 그의 인터뷰가 신문 앞머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순위를 떠나 만사대평 팀에게는 1년 6개월 동안 마을신문을 만들어 내던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활동해나가는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대평동 깡깡이마을의 겨울 풍경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8톤 제주골목 일대와 15톤 일부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안등 및 우체통 등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어두운 18톤 골목벽을 빨강색, 노란색, 하늘색, 연두색으로 채색해주었는데 차가운 대평동 골목이 더욱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김동진 편집위원



구름 끈 쌀쌀한 어느 날. 배가 없는 도크장에서 낚싯대를 바다에 드리우고 있는 직원의 모습에서 한산한 대평동의 겨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밧줄을 가득 품고 있는 두 척의 작은 작업선이 “저도 쉬고 있어요”라며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춘옥 주민기자



요즘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아 쉬고 있는 오징어 배를 찍어봤습니다, 바다에 오징어가 많아져 대평동 가계들의 생활지수가 올라가 대평동 사람들의 주 머니도 더욱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미 신입기자



11월 초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마을신문 기자교육을 받았는데 그 덕분에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 와서 양말을 파는 분인데요. 조선소나 공업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 잘 팔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이야말로 깡깡이마을 사람들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렬 주민기자

## 2017 대평동 마을회 마지막 운영회의

글 및 사진 ·  
김동진 편집위원

대평동 마을회 운영회의를 2017년 12월 29일 깡깡이예술마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영완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평동을 행복 마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새해 황금 무술년에는 대평동 주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8년 깡깡이예술마을과 함께 추진할 마을사업단 기획안을 송교성 사무국장님이 설명해주었고 박기영 총무님의 경과보고 후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깡깡이마을에 조성될 다방 이름을 결정하는 것인데 ‘대평마을다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마을동아리는 크게 마을알리기팀, 마을가꾸기팀, 마을다방/행사운영팀으로 나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국선박전기협회 송년의 밤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한 연회장에서 한국선박전기협회(회장 최경섭)의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노고를 취하하고 함께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박 전기 업체 대표 및 기술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선박전기협회는 선박 기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박 전기 분야의 대표 협의체로 1년에 두 번 전회원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큰 모임을 갖는데 송년의 밤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 협회는 대평동 예광전기공업사의 최경섭 대표가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특히 대평동 업체 기술자 분들이 한국 선박 전기 기술 향상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한국선박전기협회  
최경섭(예광전기공업사) 회장

##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2017년 남항동민 송년회 개최

글 및 사진 ·  
남항동주민센터 김지현 주무관

지난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남항동 국제선용품유통센터 5층에서 100여명의 남항동 유관단체원과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남항동민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2017년 동안 남항동민이 함께 했던 많은 성과들을 공유하고, 남항동 단체원으로서 우수한 활동을 한 회원의 수고를 표창함은 물론 홀로어르신 반찬배달사업인 정나누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한 해 동안 함께 했던 단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통해 남항동민 간의 정은 더욱 돋보였으며, 참석자들 모두는 2018년 무술년 새해의 복과 행운이 남항동 주민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문장용 남항동장은 “남항동 주민들의 많은 지원과 봉사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행복 가득한 남항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며 한 해 동안 함께해준 남항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남항동 주민자치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김용민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준 남항동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남항동을 위해서 여러 자리에서 남항동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감사와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칭찬합니다

네 번째 칭찬릴레이 주인공 **이순자 님**

이순자님께서는 19통 김영곤 통장님을 칭찬 주인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인상만큼이나 마음도 따뜻하신 김영곤 통장님은 마을의 작은 일도 자기 일처럼 세세히 살피신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방역을 해 19통을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며 또 어르신들에게는 김치와 쌀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데 드실 때면 소위 ‘아재 개그’를 하여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김영곤 통장님의 마음 씀씀이와 인간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여겨 꼭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취재 · 이종렬 주민기자



##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사람 12년 째 지역에 직접 담은 김치를 기부하고 있는 황기자 씨(55)

인터뷰 및 정리 · 하은지 편집위원  
사진 제공 · 남항동주민센터, 황기자  
일러스트 · 정종우



직접 담은 김치를 기부하기 위해 남편(구현우 씨)과  
남항동주민센터를 찾은 황기자 씨

황기자 씨는 남항동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며 궁금해 할 정도이고 마을신문 편집 회의 때도 성함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황기자 씨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봉사와 기부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려 10년 넘게 이웃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남항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직원분의 말씀에 따르면 황기자 씨는 매달 직접 담은 김치 100kg(10kg 10묶음) 정도를 해당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치는 다른 봉사자들에 의해 남항동 일원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포기로 따지면 20~30포기 정도 되는 것인데 황기자 씨는 이 일을 무려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한결 같이 봉사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 황기자 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을신문에 싣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알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서 부끄럽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하셨는데요. 황기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기부나 봉사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바꿀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말에 김치 기부를 시작한 계기 등 몇 가지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제 김치를 담아 기부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을 비롯해 크리스마스까지 1년에 3~4번 정도 김치를 100포기씩 담아 신선동에 있는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갖다 드리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황기자 씨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김치 없이 밥만 놓고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노인주간보호 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오던 터라 복지관에 자주 가곤 했는데 어떤 단체에서 김치를 보내온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 다른 사람들은 진료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재능봉사를 하는데 나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김치를 담아 기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에 네 번, 김치 100포기를 담아 복지관에 기부하는 것을 비롯해 본인이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남항동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 김치를 담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2007년부터 매달 20~30포기씩 김치를 담아 남항동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는김장을 열다섯 번 넘게 하는 셈인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자 “힘은 들죠”라며 운을 떼셨는데요. 말뜻



대평동의 한 독거 어르신 댁에 전달된  
황기자 씨의 김치

과 다르게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힘든 점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외식은 가끔 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집에서 먹을 반찬은 거의 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기부하는 김치도 내 손으로 배추도 다 절구고(절이고), 쟁어내고, 양념으로 들어가는 마늘도 다 내 손으로 까서 만들어요. 그러다보니 힘이 들긴 한데 어르신들께 드릴 김치도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담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황기자 씨도 딱 한 달만은 김치 기부를 쉰다고 하는데요. “8월은 1년 중에서 배추가 가장 비싼 시기예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8월은 쉬는 편이죠. 8월에만 그 렇지 다른 날에는 배추가 비싸도 김치를 담아요.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난 추석 때는 배추 한 포기에 7500원이나 할 정도로 정말 비쌌어요. 고춧가루도 정말 비쌌구요. 그럴 때는 평소에 100포기 담았다면 80포기나 90포기 정도 담는 거죠”

황기자 씨는 자신의 기부가 별 일이 아닌데 주변에서 청찬을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한다며 상장도 줘서 부담이 되는 한편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돈이 드는 일이라 가족이 반대하면 계속하기 어려운데 남편(구현우 씨)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지금까지 해올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두 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따님들은 엄마의 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김치를 100포기 씩 담을 때는 집안이 아주 영망이 돼요.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 소리도 안해요. 처음 봉사는 걸 시작한 게 큰딸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각자 가진 걸 조금씩 모아서 후원금을 낸 것이었어요. 지금은 두 딸 모두 대학을 졸업했는데 커오는 동안 저나 남편이 아이들에게 봉사 같은 걸 많이 시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아이들은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을 여쭤보자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김치 기부를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다시 소원을 빌기



1년에 3~4번 김치 100포기 담아  
12년째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매달 담은 김치 20~30포기도  
10년째 남항동주민센터에 전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는 황기자 씨

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형편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주세요. 10년은 해보자는 목표로 시작했다는 김치 기부를 10년을 훌쩍 넘기도록 해오며 앞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보자고 다짐한다는 황기자 씨. 그런 황기자 씨가 있어 남항동의 많은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를 밥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12년 간 이어온 황기자 씨의 김치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기자 씨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꾸준한 기부와 봉사는 자신에게도 분명 큰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라 사실도 말이죠. 황기자 씨의 환한 목소리와 밝은 웃음소리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뿌리** : 파뿌리는 피부를 열어주고 땀을 배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비타민 A,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환절기 감기약으로 파뿌리를 끓여 마시면 감기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100세까지 깊숙하게 살기 위해

**길경** : 한약재 이름으로 길경이라 불리는 이것은 도라지로 당분과 섬유질,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고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있어 감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효과가 좋아요.



##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감기에 걸렸을 때 좋은 음식들

**매실** : 식품이자 한약재인 매실은 구연산, 유기산이 많아 피로회복과 소화 작용, 해열 작용이 뛰어나 감기 예방과 더불어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 좋아요.



**은행** : 감기 예방이나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이는 음식이자 약재입니다. 가래와 기침에 좋고 부기도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약간의 독성이 있어 하루에 10~20알정도 익혀서 드시면 좋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며 약재이니 감기 예방에 꼭 참고하세요!

글 및 그림 · 이은미 주민기자



## 대평동 용어 사전

## [항해등]



낮은 짧아지고, 밤은 더욱 깊어지는 겨울의 바다. 겨울 바다일수록 야간 운항을 위한 선박의 ‘항해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헤드라이트를 밝게 켜는 자동차와 달리 선박은 독특한 전등을 달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크기가 작은 요트부터 대형 상선까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모두 이 ‘항해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항해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대평동 1가에 위치한 제일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박 전기 관련 부품을 취급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십 종의 항해등 및 관련 부품을 보유·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일의장의 이치윤 사장님은 “항해등은 선종이나 선박의 길이에 따라 1종부터 갑종 까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종류로는 운전 부자유 시 켜는 ‘홍등(紅燈)’, 우측을 녹색 좌측을 적색으로 하여 깜빡이 기능을 하는 ‘현등(舷燈, side lights)’, 앵커(Anchor)를 내릴 때 켜는 ‘백등(白燈)’, 항해 중에 켜는 ‘선미등(船尾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헤드 라이트라고 불리는 ‘장등(長燈)’은 항해 시에 점등합니다. 이외에도 대평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인선에는 노란색의 ‘견인등(牽引燈)’을, 트롤선엔 360도의 ‘어업 녹등(綠燈)’을 달기도 합니다”라며 항해등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

배의 크기는 달라도 항해등을 켜는 방식 즉 등화(燈火)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선박의 항해등은 필라멘트 단선에 대비하여 위아래로 두 세트를 겹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항해등은 선박의 항해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등에 이상이 있을 때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경보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항해하다 발전기 고장 등 주전원의 이상이 온다면 우선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곳도 바로 항해등입니다. 그만큼 선박의 항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해등은 나아갈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칠혹 같은 겨울 바다의 어둠 속 나의 상태를 주변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글·우동준 객원기자

## 시화 있는 깡깡이마을

\* 이 시화는 깡깡이예술마을 시화동아리 회원이신  
김길자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 두분의 어머니

#### 김길자

나도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 자식들을 사랑하시던 어머니의 살아생전 마음을 알것같다 팔남매를 낳으사고 막내동생 낳고나서 고혈암 병을 얻어 항상어린 마음에 돌아가실까봐 학교 졸업후 살림을 도왔다 결혼후에도 노심초사 큰딸걱정 하시다 외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비행기타고 서울구경 가시다 해서 안에서 혈압으로 5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다 태산이 무너진것 같았다 한분의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아껴주셨다 애기를 내명을 놓았지만 벽일까지 손에 물을 넣지못하게 하며 며느리를 산후조리 시켰다 여름엔 옷에 풀을해 다립질 해서 입고나가시면 동네분들은 며느리가 깨끗하게 해드린다고 저를 친창 하셨다 어머님도 평생병원에 가시지 않고 건강하셨다 94에 아침잠늦고 낮잠자고 나서 돌아 가셨다 이세상에서 저의 시어머님 같이 좋은분은 없다 갈거리에서 노인들을 보면 살아생전 어머님들께 잘해드리지 못한 불효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두분의 어머님들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님들의 큰며느리, 큰딸이 훈을 울립니다.



## 2017 마을미디어축제 참가기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17 마을미디어축제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관, KNN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부 행사는 센터 1층에서 열렸는데 마을라디오 카페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복성경(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사회 하에 총 7개 팀(동래FM얼쑤, 부산의달콤한라디오, 부평깡통라디오, 양산마을라디오, 온새미학교 온에어, 청바지)이 공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층 공개홀에서는 2부 행사로 “전국일주 마을미디어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수진(마을미디어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는 마을미디어를 일찍 시작한 지역(서울, 대구경북, 전주전북, 제주)의 사례를 집담회라는 형식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미디어의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마을미디어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서로간의 연대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 행사는 마을미디어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6개 본선 진출팀(반반미디어, 사하배움마당, 수민동락, 만사대평, 쇠미골소리샘, 창녕 우포데이)이 각자 자신들의 마을미디어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심사위원의 점수뿐만 아니라 청중의 점수까지 결과에 반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팀의 사례 발표가 끝나면 방청석에 있는 청중들이 사전에 나눠준 리모컨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몇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팀의 발표를 마친 후 바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예 대상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마을 주민 분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창녕 우포데이가, 최우수상은 대학생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반반미디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 깡깡이마을의 신문 만사대평도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 해운대늘배움신문을 만들고 있다는 하점숙(55) 씨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이제는 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봉사하고 있는데 더불어 강사로도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다. 마을미디어축제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간다.”며 참석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2017 마을미디어축제에는 우리 만사대평 주민기자 다섯 명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마을미디어 사례를 한 자리에 앉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 · 이춘옥 주민기자  
사진 · 이춘옥, 마을미디어연구소

1. 마을라디오 카페 공개방송
2. 전국일주 마을미디어 집담회
3. 사례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만사대평 김동진 기자
4. 마을미디어 사례발표회 시상식





근대 수리조선1번지 대평동의 미래 유물을 모집합니다

## 함께 채워가는 깡깡이 마을박물관

**가능 물품** 수리조선 관련 기관 및 부품 / 오래된 공구  
/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물품, 문서, 사진 등

**수집 기간** 2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기증 장소** 깡깡이예술마을 생활문화센터(대평경로당 2층)

**문의**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051-418-1863

\* 기증물품은 기증자 성명을 기재하여 마을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손때 묻은 작고 오래된 공구도 환영합니다”



(참고이미지\_대구 북성로 공구박물관)



●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광고를 실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